

MMTIC을 활용한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송 선 속 (공주교대 교육대학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롭게 생각하는 학생은 학습활동 및 교우관계를 만족스럽고 조화롭게 유지하며 원만하게 성장해 간다. 그러나 자신을 무능력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학생은 무엇이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장과 발달이 낮고 또한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종종 곤란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렇게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Reasoner(1982)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서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며 타인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잘 인식하고 주위환경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는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에서는 자아존중감이 관련되어져 있다고 Crandall(1975)이 강조한 것과 같이 학생의 원만한 교우관계와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도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은 점차적으로 발달되나 학동기 동안 현저한 발달을 이루며, 한 번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이 계속될 때까지 거의 항상적으로 유지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현저히 발달되는 초등학교시기에 학교교육에서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위한 인지적, 행동적 접근(조수영, 1994), 개인의 성격특징 또는 행동경향성들과의 관계연구(김지아, 1993; 이은선, 2001) 등 선행연구가 다수 있다. 하지

만 자신의 성격이해를 통한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시도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박정묘(1996), 이지화(2000), 강재정(2002) 등에 의해 성격이해를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을 도모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Murphy-Meisgeier Type Indicator for Children:이하 MMTIC)이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보고를 하고 있다.

MMTIC은 성격을 심리적 경향의 역동적 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Jung의 심리유형론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으며, MMTIC이 이론적 기초가 되는 MBTI는 1941년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상담과 심리치료, 교육과 진로분야 산업조직체내 인력개발과 개인성장프로그램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MMTIC을 통한 심리유형의 이해는 어린이, 청소년에게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수용도를 넓히고 성취동기를 높여준다(김정택;심혜숙, 1993). 특정한 성격유형을 가진 개인에게 그 개인의 성격에 적합한 상담과 자문을 피드백 해 줄 수 있으며, 자신의 긍정적인 성격특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하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장면에서 자기 이해의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MMTIC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5학년 중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이상에서 기술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MMTIC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이와 같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 가설 : MMTIC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 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연구자가 근무하는 보령시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존중감 효과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검증은 하지 못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MMTIC에 의한 성격유형

인간 성격의 개인차를 이해하는 유형들은 1920년 심리유형론(Psychological Type)이라는 Jung의 저서에서 사람들을 보다 깊이 관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심리유형이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Jung(1976)은 인간의 행동이 겉으로 보기에 는 멋대로 이고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무쌍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질서정연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몇 가지 특징적인 경향으로 나뉘어 있음을 강조한다. 심리적 에너지는 그 사람의 내부에서나 아니면 바깥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어떤 사람은 내향성(Introversion)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외향성(Extraversion)이 된다. 그는 인간이 외부환경을 대하는 방법에도 사람에 따라 각기 독특한 기능이 있음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각(Sensing)이나 직관(iNtuition)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인식형(Perceiving Tykpe)이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사고(Thinking)나 감정(Feeling)기능을 주로 사용하는 판단형(Judging Type)임을 관찰하였다.

Jung은 이러한 기능의 선호성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며 이러한 근본적인 선호성이 각기 다른 심리유형을 지닌 인간의 개인차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선호성은 어떤 민족이나 문화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으로 믿었다. 이러한 C. G Jung의 심리유형이론에 바탕을 두고 Myers-Briggs는 인간의 인식과 판단의 선호경향을 알아내는 성인용 성격유형검사(Myers-briggs Type Indicator : MBTI)를 만들어 내었다.

MBTI는 1900년부터 75년 동안 Katharine Briggs, Isabel Myers 그리고 Peter Myers에 이르기까지 삼대에 걸쳐 만들어졌다. 그러나 MMTIC은 1990년 미국의 Murphy박사와 Meisgeier박사에 의해 개발되어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Murphy-Meisgeier Type Indicator for Childorn :MMTIC)라는 이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MMTIC의 한국 표준화 작업은 김정택·심혜숙 박사에 의해 개발되어, 1993년부터 만 8세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MMTIC이 MBTI와 크게 다른점이 있다면 미결정 영역인 U밴드가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심리적 선호도가 아직 발달중이므로, 중간치(cut-point)에 가까운 점수를 분명한 유형으로 할당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호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간치에서 일 표준오차(one standard error)내의 점수를 갖는 경우, U-band(Undetermined - band)라고 정하였다. U-band는 발달과정상 나타나는 특성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U-band의 비율이 대체로 낮아진다(김정택·심혜숙, 1993).

유형발달은 유아기부터 시작된다. 심리유형 이론에 따르면 어린이는 자기가 타고난 경향을 상황의 구별없이 쓰는 가운데 그 경향에 더욱 익숙해져간다고 본다. 근간의 이론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그들의 주기능을 6세에서 14세 사이에 나타낸다고들 한다(Grant Thompson & Clark, 1983; Schmel & Borbely, 1982; 김정택·심혜숙, 1993에서 재인용). 즉, 초등학교 연령기에 인식하고 판단하는 각자의 양식이 대체로 형성되어가며, 인식과 판단의 과정에서서 그들이 가치관과 가치관의 우선 순위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어린이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차를 가지며, 이러한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어린이들도 그들의 고유한 개성과 다른 점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어린이가 각자의 심리유형이 지니는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유형발달이 일관성 있고 건강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MBTI 이론이 가진 장점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유형상의 차이를 미리 예견하여 보다 건설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 있으며, 단지 개인의 유형을 안다는 것을 넘어서, 유형을 알게 됨으로써 건강하고 충분히 기능하는 유형으로 점진적으로 발달해 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김정택·심혜숙·제석봉, 1995).

MMTIC에서는 외향-내향,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이라는 4가지 양극지표를 표출해 낸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두 경향 중 하나를 더 심리

적으로 선호하게 되어 있다. 심리적 선호경향이란 첫째, 자신이 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활용하는 것. 둘째, 선택적으로 더 자주, 많이 쓰는 것. 셋째, 상대적으로 편하고 쉬운 것을 말한다.

<표 1> MBTI(MMTIC)의 4가지 선호경향(한국 MBTI연구소)

외향(Extraversion)	↔	내향(Introversion)	: 에너지의 방향, 주의 초점, 태도지표
감각(Sensing)	↔	직관(iNtuition)	: 인식기능(정보수집), 마음의 기능
사고(Thinking)	↔	감정(Feeling)	: 판단기능(판단, 결정), 마음의 기능
판단(Judging)	↔	인식(Perceiving)	: 행동양식/생활양식, 태도지표

Jung의 이론에 따르면 어린의 성격발달이란 평생을 통하여 천천히 단계별로 성장해 가는 씨앗과도 같다고 하였고, Myers는 바람직한 유형발달은 인생의 초년부터 시작되며 환경은 유형발달을 돕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여 어린이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중요시하였다(Myers & McCaukey, 1985).

따라서 MMTIC을 통해 초등학생의 선천적인 심리경향성을 발견하고, 개인의 성격과 환경에 반응하는 태도가 다름을 이해하게 하며, 자신과 타인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성격유형검사를 활용한 집단상담과 자아존중감

건강하고 성숙함을 지닌 인간으로 변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태도와 함께 자신의 능력과 권리, 의견, 생각, 등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는 자기주장이 필요하다.

집단 상담은 이러한 자기이해, 자기 수용, 자기거방, 자기주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집단원들 상호간의 신뢰감을 높여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

김정택과 심혜숙(1993)은 MMTIC 성격유형을 이해함으로써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부모-자녀간의 관계와 어린이와 교사간의 관계 및 어린이 자신의 친구 관계 향상에 도움이 된다. 자녀교육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심리유형 차이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갈등의 이해와 어린이의 심리유형의 발달이 부모의 심리유형에 의해 최대한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 줄 것이다. 또한 교사가

어린이의 심리유형을 파악할 때, 교사자신의 심리유형이 지향하는 교수 방법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의 심리유형에 맞는 교수방법이나 학습스타일을 살려 최대한 학습 교육의 장에서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린이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자긍심 및 자신과 다른 어린이에 대한 수용도가 넓혀지고 성취동기를 높여주며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어린이의 심리유형 이해는 어린이의 지능개발과 성장상담에 기여할 것이다. 어린이의 발달과정 중 가족 안에서 부딪치는 적응문제와 가족들의 상호이해를 높여 주므로써 가족 치료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 될 것이다. 그러므로 MMTIC은 어린이들의 긍정적인 자아개념형성을 돕고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돕는 연구도구로 유용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Maslow(1954)는 자아실현이 높은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개방적이고 솔직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먼저 집단상담의 경험이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ebout와 Gordon(1972)은 집단 훈련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인간 관계의 친밀도가 높아졌다고 하였다. Johnson & Rider(1958)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긍정적 자아개념을 증진시키므로써 자기노출을 높였다고 보고하였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MMTIC 및 MBTI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류영옥(1994)은 C-MBTI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을 실시하여 초등학생의 진로성숙과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정묘(1996)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MMTIC을 활용한 SAM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동들의 자아존중감과 학습 효능감의 향상을 보고하였다. 심혜숙과 김명권(1996)은 비행청소년들의 심리적 경향성을 연구하고 그들이 지닌 성격적 잠재력과 장점 그리고 보완할 점 등에 초점을 맞추어 MBTI 성장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권복순(1996)은 보호관찰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MBTI를 통한 청소년 성장 집단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의 자아존중감이 의미있게 향상되고, 자신의 행동과 삶을 통제하는 능력이 의미있게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김현정(1998)은 결손가정 중학생을 대상으로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지화(2000)는 MBTI 및 MMTIC을 활용한 상담활동을 실시한 결과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 특히 이지화(2000)는 MMTIC을 활용한 집단

상담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었으므로 보고하였으며, 강재정(2002)은 MMTIC 성장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초등학생들은 다른 연령층보다도 집단 지향성(指向性)이 높고 성인보다 동료들에 의해서 더 쉽게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으므로 집단경험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자 함이 매우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보령시 소재 D초등학교 5학년 중에서 20명이었다.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5학년 2학급 66명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진단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 즉 각반 33명을 가장 낮은 점수의 학생부터 순서대로 10명씩을 추출하여 1반은 실험집단(N=10명), 2반은 통제집단(N=10명)으로 배당하였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설계는 MMTIC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비교하여 실험처치 결과를 평가하는 '전후 비교집단 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이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각각 G 1과 G 2, 실험집단 O 1(사전검사) 후 X(실험처치)를 투입한 다음 O 2(사후검사)를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은 같은 시기에 O 3(사전검사)와 O 4(사후검사)만을 실시하였다<표 2>.

<표 2> 실험 설계

G 1	O 1	X
	O 2	
G 2	O 3	
	O 4	

체 집단을 대상으로 동작활동, 같은 유형끼리의 그룹작업, 그룹별 발표, 자신을 탐색하기 위한 개인활동으로 이루어졌다. 회기별 활동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프로그램의 시작 단계에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동작활동을 하였으며, 과정 중에 격려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고무시켰다. 매회 프로그램마다 전 회기에 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회기의 목적과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활동이 끝난 후에는 소감을 나누거나 정리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주요활동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MMTIC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내용

회기	주제	활동내용	개입전략
1	MMTIC의 이해 및 검사	· 프로그램 소개 · MMTIC(성격유형검사) 소개 및 검사 실시	개별활동
2	자기성격 유형 이해하기	· MMTIC의 네가지 선호경향 설명 및 자기유형 추측하기 · 각 개인의 성격유형 이해 · 16가지 성격유형의 특징	개별활동
3	넥타이 그리기	○ 개인적으로 넥타이를 그리고 성격유형별로 모여, 넥타이 그림의 공통점과 다른 유형과의 차이점 찾아보기	유형별 그룹활동
4	지도 그리기	○ 학교주변의 지도를 그리기를 통한 선호경향 감각(S)과 직관(N)형의 차이 알아보기	기질별 그룹작업
5	여행계획서 짜기	○ 여행 경비 천만원으로 2박 3일간의 여행계획서 짜기를 통한 선호경향 판단(J)과 인식(P)의 차이 알아보기	기질별 그룹활동
6	소중한 나와 너(I)	○ 성격의 공통점 ○ 반대유형과의 활동을 통해 서로 다름을 알기	유형별 그룹작업
7	우리 유형이 만들고 싶은 학교	○ 성격유형별로 만들고 싶은 학교의 교훈을 정하고 만들고 싶은 학교 나타내보기	유형별 그룹작업
8	성격유형별 학습 방법 찾기	○ 성격유형별 학습방법 찾아보기 - 좋아하는 교과 - 좋아하는 숙제 - 시험공부방법	기질별 그룹활동
9	소중한 나와 너(II)	○ '참 나의 탐구' 명상활동 ○ 나의 뿌리 찾기	기질별 그룹활동
10	소감문 작성 및 마무리	○ 프로그램 내용 정리 ○ 소감문 작성하기	개별활동

4. 측정도구

측정도구로서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이후, 자아존중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험도구로는 MMTIC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성격유형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린이용 성격유형 검사지(MMTIC)를 사용하였다.

가. 어린이용 성격유형 검사(MMTIC)

MMTIC은 Jung의 심리유형 이론과 성인용 성격유형검사(MBTI)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Murphy & Meisgeier, 1990)로서 심혜숙, 김정택 교수(1993)에 의해 한국어판으로 표준화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검사-재검사에 의한 신뢰도는 EI척도 .76, SN척도 .65, TF척도 .63, JP척도 .63, 전체적인 신뢰도는 .67로 나타났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MMTIC 한국어판 검사지는 7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채점방식은 손 채점과 컴퓨터 채점 모두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손 채점이 가능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나. 자아존중감 검사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희화(1998)의 척도를 수정 사용한 문용우(2002)의 검사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문용우(2002)의 척도는 한국의 초등 고학년 및 청소년에게 중요한 다양한 자아상을 반영하는 7가지의 하위영역 즉 학업관련 자아, 친구관련 자아, 가정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 성격적 자아, 교사관련 자아, 일반적 자아관련 문항 등 8개 영역 5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범위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며 본 연구에서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2 로 나타났다. 문항 내용은 <표 4>과 같다.

< 표 4 > 자아존중감 검사도구(Cronbach α =.92)

하위척도	문항번호	신뢰도 계수
학업관련 자아	8,16,22,50,51	.6808
친구관련 자아	10,21,29,31,34,38,39,40,46	.8597
가정적 자아	1,4,7,9,24,48	.8174
신체외모 자아	12,18,19,20,27,30,42	.7462
성격적 자아	2,11,13,15,28,49	.7531
신체능력 자아	5,6,17,26,41,43	.7357
교사관련 자아	14,25,32,36,47	.7488
일반적 자아	3,23,33,35,37,44,45	.8210

다.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설문지

MMTIC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단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작성 실시하였다. 심혜숙과 김명권(1996)이 제작한 자기보고용 설문지를 참고로 정경연(2001)이 재구성한 프로그램 설문지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라. 소감문

매 회기가 끝날 때마다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일기 형식으로 쓰도록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마지막 회기에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솔직하게 쓰도록 하였다.

5. 자료처리

가. 통계적 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PC+ 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호화, 전산처리, 통계적 해석 등의 순으로 처리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검사의 사전 검사 결과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t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실험집단에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투입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고, 프로그램 실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1$, $p=.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나. 설문지에 대한 반응 분석

통계적 검증에 따른 양적 결과가 지닌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에 자유형식으로 쓴 프로그램 평가지와 소감문을 토대로 하여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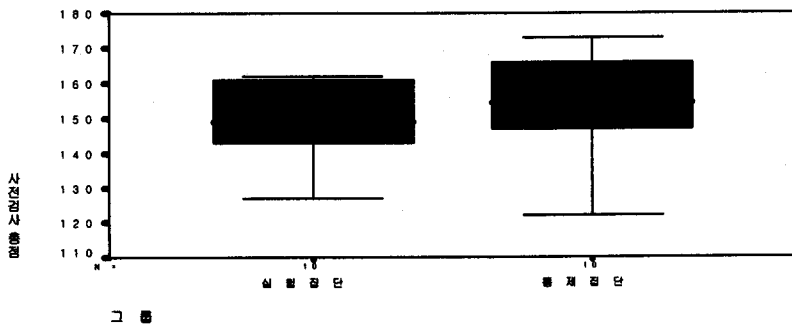
V. 연구결과 및 해석

MMTIC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통계적 분석 결과

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동질성 검증 비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자아존중감의 각 영역에서 서로 동질 집단으로 가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검사지를 이용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사전 검사 총점의 분포를 상자와 수염 그래프(Boxplot)로 나타내어 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두 집단의 최대값, 최소값, 중앙값 및 사분위 값등의 통계적 분포를 살펴보면 두 집단의 점수 분포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통제 집단의 경우 실험 집단보다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가 크며 각 사분위의 범위도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점수 통계 그래프

통계적 분포는 두 집단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두 집단 점수 분포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 결과를 독립 표본 t-검정 (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두 집단의 여덟 가지 영역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차이, t 값, 유의도는 <표 5>와 같다.

<표 5>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 검사 점수의 차이 검증

	실험 집단(N=10)		통제 집단(N=10)		평균 차이	t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업관련자아	13.700	3.591	12.90	2.558	.800	.574	.574
친구관련자아	26.600	3.657	27.90	4.886	-1.300	-.674	.509
가정적자아	17.600	2.633	18.90	3.665	-1.300	-.911	.376
신체외모자아	19.800	5.266	22.00	2.211	-2.200	-1.218	.239
성격적자아	15.600	4.005	18.70	3.198	-3.100	-1.912	.073
신체능력자아	18.900	3.842	18.80	2.859	.100	.066	.948
교사관련자아	18.000	2.788	16.80	3.293	1.200	.879	.391
일반적자아	17.500	4.326	18.70	3.128	-1.200	-.711	.486
총 점수	148.900	12.224	154.70	15.231	-5.800	-.939	.360

두 집단간의 각 영역들과 전체의 합계 점수를 독립 표본 t-검정한 결과 두 집단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두 집단의 점수 분포와 평균값 등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집단은 본 검사에서 실시한 자아존중감 영역 측면에서 서로 동질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가설 검증

MMTIC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은 통제 집단 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향상될 것이다.

실험 집단에 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뒤,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의 두 집단의 자아존중감 사후 검사를 서로 비교해 보았다. 두 집단 점수 분포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 결과를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6>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후 검사 점수의 차이 검증

	실험 집단(N=10)		통제 집단(N=10)		평균 차이	t	유의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업관련자아	17.2000	4.51664	12.4000	4.59952	4.8000	2.355	0.030
친구관련자아	31.2000	5.00666	25.3000	5.98238	5.9000	2.392	0.028
가정적자아	21.3000	2.16282	18.7000	5.10011	2.6000	1.484	0.155
신체외모자아	23.3000	5.20790	20.4000	3.86437	2.9000	1.414	0.174
성격적자아	18.3000	4.00139	19.6000	2.67499	-1.3000	-0.854	0.404
신체능력자아	21.0000	3.74166	16.6000	3.33999	4.4000	2.774	0.013
교사관련자아	20.4000	2.50333	18.2000	3.29309	2.2000	1.682	0.110
일반적자아	23.6000	4.45222	18.1000	4.09471	5.5000	2.875	0.010
총 점수	177.6000	16.58111	150.8000	21.13870	26.8000	3.155	0.005

두 집단간의 각 영역들과 전체의 합계 점수를 독립 표본 t-검정한 결과 두 집단의 자아존중감은 학업관련자아, 친구관련자아, 신체능력자아, 일반적 자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학업 관련자아, 친구관련자아, 신체능력자아, 일반적 자아 영역에서 통제 집단보다 실험 집단의 평균점이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기 때문에, 실험집단의 네 영역에서 자아존중감이 통제집단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2. 설문을 통한 반응 분석

가. 프로그램 평가 설문지에 의한 분석

성격유형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간단한 자기 보고용 설문지를 작성하여 실시하였는데, 설문지 내용은 대체로 프로그램에서 다룬 것이다. 설문지 내용과 결과 분석은 <표 7>, <표 8>과 같다.

<표 7> 성격유형을 활용한 집단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설문지 결과 (N=10)

	설문내용	1	2	3	4	5
		전혀 아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보통 이다	꽤 도움이 되었다	많이 도움이 되었다
1	성격유형활동을 통해 자신의 성격에 대하여 얼마나 알게 되었습니까?			1	5	4
2	성격유형활동을 통해 자신의 성격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3	5	2
3	성격유형활동을 통해 친구들의 성격을 얼마나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4	5	1
4	타인의 성격을 알게 된 것이 친구를 사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3	4	3
5	성격유형 활동을 통해 가족의 성격을 얼마나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2	5	3
6	성격유형활동을 통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1	4	4	1
7	성격유형활동을 통해 남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습니까?			2	7	1
8	성격유형활동을 통해 우리 반 친구들과 얼마나 많이 가까워졌습니까?			5	4	1
9	성격유형활동을 통해 선생님과 얼마나 많이 가까워졌습니까?				6	4
10	성격유형활동이 자신의 공부 태도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습니까?			4	5	1

<표 7>에 의하면 학생은 성격유형을 활용한 집단상담을 통해 자신의 성격에 대한 이해(9명)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친구(6명)와 가족(8명)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의 성격이해를 통해 친구를 사귀는데 7명의 아동이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자신의 성격을 이해한 것이 가족과 친구의 성격을 이해하고 사귀는데는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지만 실제생활에서의 문제해결(5명)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으나(8명), 실제로 친구들과 가까워진 것은(5명)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성격유형을 활용한 공부 태도에는 6명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도자와 참가자의 친밀도(10명)에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8>에 의하면 학생들은 성격유형을 활용한 집단 상담을 통해 자신의 성격이해(5명)와 대인관계(2명) 및 자신감(2명)에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부방법(1명)과 자신의 문제해결에는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한 것

으로 나타냈다.

또한 프로그램 활동 중에는 '넥타이 꾸미기'와 '여행 계획서 짜기' 등 서로 다른 개인 활동과 소집단 활동을 재미있었다고 반응한 학생이 많았다. 프로그램 활동 중 재미없었던 활동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학생(5명)이 많았고, 5명의 학생이 '반대유형과 활동하기' 같은 개별 활동을 재미없는 활동으로 나타냈다.

<표 8> 성격유형을 활용한 집단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설문지 결과(N=10)

	질문	응답	응답자수
1	성격유형활동을 통해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성격에 대한 이해	5
		대인관계	2
		자신감	2
		공부방법	1
		자신의 문제해결	.
2	성격유형활동 중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은 무엇입니까?	넥타이 꾸미기	4
		세 가지 소원	1
		여행 계획서	4
		나의 미래	1
3	성격유형활동 중 가장 재미없었던 활동은 무엇입니까?	무 응답	5
		반대유형과 활동하기	5

나. 소감문에 의한 질적 분석

프로그램 종료 시 작성한 전체 소감문의 내용 중 자아존중감에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소감문 분석

유형	별칭	내용	자아존중감 관련 변인
ENFP	고양이	같은 성격이라도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내 성격에 대해 알게되어 너무 재미있었다. 친구들과 토의도 잘 되어서 너무 좋다. 여행계획서 대로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가고싶다. 친구들과 토의를 하면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다.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셔서 좋다.	친구관계, 교사관계, 성격관계, 일반적 자아
	따꼼이	나에 대해 알게되어 너무 좋다. 친구들과거리 늘어서 재미있고 친구들의 성격을 알게되어 기쁘다.	성격관계, 친구관계
	우유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놀아주셔서 참 좋다. 이제부터는 나의 장점을 알았으니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난 자신감이 높을 줄 알았는데... 친구들과 나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교사관계, 학업관계, 친구관계, 성격관계

유형	별칭	내용	자아존중감 관련 변인
ESFP	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에게도 좋은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 기쁘다. 중학교에 가서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장래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이 좋다. 친구들과 친해진 것 같아서 좋다.	성격관계, 학업관계, 친구관계
ESTP	흠즈	솔직하게 서로 이야기해서 좋다. 나의 장점을 알게 되어 기쁘고, 친구들이 많아졌고, 토의를 자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자신감이 더욱 높아졌으면 좋겠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	성격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ISFP	참다래	처음에 싫었지만, 차츰 재미있었고, 나의 성격을 알아맞히는 것이 재미있었다. 친구들과 더욱 친해지는 것 같았다. 앞으로는 친구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반대유형에 대해 알게 되어서 좋다. 내가 테레사 수녀와 성격이 비슷하다는 것이 기분이 좋다.	성격관계, 친구관계,
	나비	나의 공부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어 그렇게 공부하고 싶다. 나의 좋은 점을 알게 되고, 좋아하는 친구가 생겨서 기쁘다. 내 성격이 좋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셔서 기쁘다.	학업관계, 성격관계, 친구관계
INFJ	태곤 소녀	친구들의 좋은 점을 알게 되고, 나에게 대해 알게 되어 기쁘다.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다른 친구들도 함께하면 더욱 좋겠다.	친구관계, 성격관계,
ISTJ	추민	나의 성격을 알려주는데 맞는 것이 많았고, 나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과 나의 장래 희망과 내 성격과 맞다는 것이 신기하다. 열심히 공부 해야겠다. 보람이 있었다. 나의 반대 유형인 '충기'와 같이 얹게 해주신 선생님이 고맙다. 어머니께 내 성격을 말씀드려야겠다.	성격관계, 학업관계, 친구관계
ISFJ	비병 영숙	나의 성격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성격의 좋은 점을 알게 되어 기쁘다.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진짜로 우리끼리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성격이 꼭 맞는 것 같다.	성격관계, 친구관계

소감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자신의 성격과 타인의 성격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신의 성격이해를 통한 장점 발견과 자신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같은 유형끼리, 다른 유형과의 소그룹 활동이 대인관계에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사료된다.

소감문 내용을 자아존중감의 하위 영역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업 관련 영역에서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학습방법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효율적인 학습계획을 세워봄으로써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성격 관련 영역에

서는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냄으로써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자신의 장점 뿐 아니라 단점을 알고 보완해나감으로써 자신을 진정으로 수용하게 되며, 어려운 일이나 과제를 갖게 되는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친구 및 교사에 관련하여 친구 및 교사의 성격을 이해하는 활동과 활동 중의 서로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 친밀감을 형성하고 대인관계에서의 향상으로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MMTIC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5학년에 적용했을 때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밝히기 위하여 실험집단 사전-사후 자아존중감 점수의 변화와 두 집단의 사전검사, 사후검사에서의 의미 있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 후 작성한 설문지와 소감문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MMTIC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인 10시간 MMTIC 성장 프로그램을 초등학생에게 실시하여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검증한 박정묘(1996)와 강재정(2002)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 검사 점수의 차이 검증을 살펴보면, 특히 학업관련자아($p=.05$), 친구관련자아($p=.05$), 신체능력자아($p=.05$), 일반적자아($p=.05$)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둘째, 프로그램 평가 설문지와 소감문을 토대로 내용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성격유형을 활용한 집단상담을 통해 학생들은 먼저 자신의 성격이해와 대인관

계 친구 및 가족 등의 타인의 성격이해에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친밀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감과 공부방법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보면, 성격이해를 통한 자기이해의 높은 반응에 비해 낮은 반응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학생의 자신감에는 성격이외에도 학업성취와 부모님과 같은 가정·환경에 따른 개인적인 이유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성격유형활동이 초등학생의 현실적인 문제해결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개인이 처한 현실이 다르고 학생의 능력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 문제들이 많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내용들을 집단상담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결과로 보여 진다.

소감문의 내용도 설문지와 같이 자신과 친구와 가족 등 타인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원만한 대인관계와 자신감 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내용분석의 결과는 통계분석의 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에서 긍정적인 향상이 나타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성격유형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자기이해를 통한 자신의 긍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2. 제 언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초등학생으로 소수의 학생으로만 이루어졌는데, MMTIC을 활용한 집단상담은 다 인수 학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으므로 학교현장에서 학급단위로 실시하여 생활지도 뿐만 아니라 인성지도, 학업 성취능력 향상에도 활용되어져야겠다.

둘째, 교육은 학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에게 MMTIC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는다면 교육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다른 학년 특히, 저학년에 알맞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재정 (2002). MMTIC 성장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택, 심혜숙(1991). 성격유형검사(MBTI)의 한국 표준화에 관한 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 김정택, 심혜숙(1992). MBTI 안내서.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정택, 심혜숙(1993).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사 안내서.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정택, 심혜숙(1993). 어린이 심리유형검사 (MMTIC)의 한국 표준화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유형학회지.
- 김정택, 심혜숙, 임승환(공역) (1992). 나의 모습 나의 얼굴.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정택, 심혜숙, 채석봉(공역) (1995). MBTI개발과 활용.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재은, 유기섭 (공역)(1992). 심리검사의 활용.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현정 (1998). MMTIC 성장프로그램이 결혼가정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영옥 (1994). C-MBTI를 활용한 집단진로상담이 아동의 진로성숙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성주 (1991). Reasoner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용우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권리의식과의 관계연구. 경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선 (2003). MMTIC을 활용한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묘 (1996). 자아정체감과 학업성취지도 통합 프로그램(SAM)이 국민학생의 자아 존중감과 학습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동인 (1984). 사회성 및 적응성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모 (2002). MMTIC을 적용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성숙에 미

- 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화 (2000). 성격유형검사(MMTIC)를 활용한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연 (1994). C-MBTI에 나타난 국민학생의 성격유형과 지능 및 학업성취 관계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연 (2001). MMTIC을 활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유형학회.
- 조수영 (1992). 교류분석 프로그램이 국민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교우관계에 미치는효과.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남희 (1994). 국민학교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심성계발훈련과 V.I.P. 프로그램의 효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여원 (1994). MBTI에 나타난 성격유형과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부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원현 (2000). MMTIC에 의한 초등학생의 성격 유형과 학습양식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형득 (1992). 집단상담의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MBTI 전문자격교육 MMTIC 과정 자료집. 한국 MBTI 연구소.
- Bean, R. et al.(1980). How to raise teenager's self-esteem. Calif: Enrich.
- Bebout, J., & Gorden, B.(1992). The value of encounter groups. In L. No Solo-mon & B. Berzon(Edso), New perspectives on encounter groups. San Francisco: Jossey-Bess.
- Branden, J. (1992). The psychology of self-esteem, New York.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Fitch, G.(1970). Effects of self-esteem, perceived performance, and choice on causaltribu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16 311-315.
- Gazda, M. L.(1975). Basic Approches to Group Psycotherapy and Group Counsel-ing, Spring field, Ill. Charles Thomas Pub.
- Gordon, C.(1969). Self-conceptions methodologies. The Journal of Neruous and mental disease,148, 328-364.
- Joseph, J. M.(1994). The resilient child, preparing today's youth for tomorrow's work. New York : Plensum Press.

- Jung, C. G. (1971). Psychological types.(H.G.Baynes, Trans.: Rev. R.F.C.hull)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in 1921).
- Lippin, B. (1990). Personality types of women in prison. JPT. 19, 3-12.
- Martin, C. (1995). Looking at types and Careers, CAPT, Florida.
- Maslow, A. H.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y. New York: Houghton Mifflin Co.
- Myers, I. B & McCaulley, M. H. (1985). Manual : A Guide to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 Reasoner, R.W. (1982).Building self-esteem, Calif:opp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 Wylie (1974). A Review of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and Measuring Instrument (rev. edn.), The self-concept, Vol. 1. Lincoln: univ. of Nebraska Press.

The Effect of MMTIC Group Counseling Program on Self-esteem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ng, Seon Suk
Major in Elementary School Counseli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MMTIC group counseling program on self-esteem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hypothesis was that the self-esteem test scores of experimental group would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control group. The subjects were the twenty 5th graders sampled from the 66 5th graders of D Elementary School in Boryeong City based on self-esteem test scores. The 10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experiment group and others were assigned control group. The self-esteem test by Mun, Yong Woo (2002) modified from the measurement of Kim, Heui Hwa (1989) was administrated as pre and post test. The experimental group has experienced MMTIC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other hand, the control group has not been given any advice during the counseling periods. The counseling was once a week at two o'clock in the afternoon for ten weeks from the eleventh of May to sixteenth of July in 2003. Each counseling session lasted sixty to eighty minutes.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which has been used in this research, has been adapted to the level of elementary students with the consideration of MBTI and MMTIC Workshop in reference to a few theses related to MMTIC development program(Jung, Gyeong Yeon, 2001; Gang, Jae Jeong, 2002; Lee, Jae Mo 2002).

The results were analysed by t-test. These statistics with a quantitative result has been supplemented with a qualitative analysis by a questionnaire and the descriptions of impression of subjects of experimental

group.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as that the analyses of the questionnaire and a description of their impression have shown that the counseling has had an significantly impact on their understanding themselves and others. In particular, this program has been positively conducive to receptive relationships to others.

In conclusion, the MMTIC group counseling program has helped elementary students' understand themselves and others, increase receptive competence, encourage their confidence, improve personal relationships and enhance their adaptation to their school life. It suggests that this program has a feasible effect on children's sense of self-esteem.

Keyword : MBTI, MMTIC, group counseling, self-esteem